

여수시, 웅천 공사현장 흠막이 붕괴사고 원인·처리계획 발표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해 11월에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흠막이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여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하터파기를 진행하면서 차수(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막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나 이에 대한 시공과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설계에는 수로호안 쪽 흠막이 벽체를 차수성이 있는 SHEET PILE로 계획했으나 흠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차수성이 떨어지는 C.I.P(Cast In Place Pile) 벽체로 변경하면서 보조차수공법을 고려하

지 않았다. 이에 부분적으로 불안전 차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토사유실로 이완영역 발생과 토압 증가로 C.I.P벽체가 붕괴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흠막이 설계 시 철저한 분석과 흠막이 벽체 시공과 계측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품질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과 굴착과 흠막이 수평 버팀대

시공 지연이 확인되는 등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밝혀졌다.

여수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 감리사 및 공사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흠막이 붕괴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흠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국토부에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장기호 기자

순천, 조수진 국회의원과 시정 현안 공유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방문을 통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국민의힘 조수진(비례) 의원이 최근 순천을 방문해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조 의원은 순천 도착 첫 일정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순천시 현안 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의 건의를 들었다.

시는 현안 사업으로 여수만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정원화 프로젝트 2건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전교 재가설 공사 외 2건 등 총 3건의 37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와 정원박람회 개막식 윤석열 대통령 참석도 요청했다.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사업 중 하나인 도시정원화 프로젝트는 순천만~국가정원~도심을 잇는 거대 정원 축을 조성해 대한민국 정원도시

표준모델(확장형)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308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여수만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은 순천과 보성 해양자산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여수만 일대 2천억 원의 국비를 들여 갯벌습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순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에 해당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해 조수진 의원이 힘을 실어준 웹툰센터 중심으로 에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지원한 강변로 그린아일랜드 등의 사업 현장을 둘러 보았다.

특히, 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키즈가든과 노을정원 등 정원박람회 현장에서는 지난해 7월 방문 때와는 많이 달라졌으며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시하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기호 기자

구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구례군은 구례 실내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월 1일 재개관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처음 문을 연 구례 실내체육관은 연간 2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로 군민의 체육시설 활용 및 전지훈련팀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공사를 시행해 실내체육관 내부 마룻바닥 정비, 국제경기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LED 조명설치, 무대장치, 음향시설, 외부 도색 등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국제경기 수준의(조도 1800룩스 이상) 고효율 저소비전력 LED 투광등을 설치해 국제경기도 가능한 시설로 개선됐으며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군민과 전지훈련팀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다. 노후된 복도 천장재, 조명, 환풍구, 탈의실, 샤워실, 온수 공급, 난방, 화장실 타일교체 등 꼼꼼하고 세심한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한편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 전 국제전(장애인 체전) 씨름 경기가 구례군에서 개최되므로 최적의 경기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심건식 기자



광양시는 최근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새해 첫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민의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이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광양시 제공

정인화 광양시장 새해 첫 광양 감동데이 열어

광양시는 최근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2023년 새해 첫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시민의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이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이번 감동데이는 5팀 25명의 시민이 방문해 ▲옥룡 추동마을 윤선도 유배지 복원 사업 건의 ▲광영동 축구문화센터 운영방안 개선 건의 ▲해병대 팔각회 인명구조 장비 지원 건의 등 총 8건의 다양한 시민 건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는 이날 건의된 사항들을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

를 건의자에게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들은 불가사유를 건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며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 입장에서 건의사항 처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기호 기자

곡성, 2024년 공공비축미 강대찬·새청무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강대찬'과 '새청무'를 최종 선정했다.

최근 개최된 곡성군 쌀 대책 협의회는 곡성군, 농업인단체, 농협 관계자 등 27명이 참석했다. 쌀 적정 생산과 품질 고급화,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등이 논의됐다.

이번 협의회 회의는 지난 몇 년간 주된 매입품종이었던 '신동진'이 2024년부터 매입이 제한돼 대체 품종 선정이 주된 논의사항이었다.

'신동진' 대체 품종을 위해 농가, 농업인단체, 쌀 유통 농협 관계자 등의 여러 의견을 모은 결과 '강대찬' 품종이 후보에 올랐다. '신동진'의 대체 품종인 '강대찬'은 '신동진'과 재배 특성, 생육 여건, 쌀 품질이 유사한 품종이다. /이일규 기자

또한 매입품종 최종 선정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읍면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품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강대찬'과 기존의 공공비축 매입품종인 '새청무'가 높게 나타났다.

'강대찬(전남10호)'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중만생종이다. '신동진'과 비교했을 때 밥맛은 비슷하나 도복과 수발아에 더 강하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다.

다만 질소질비료 과용 시에는 미질이 저하되고 문고병(잎집무늬마름병)과 도열병에는 약하다.

따라서 곡성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영농 지도를 할 예정이다.

Sunshine GWANGYANG

행복도시 광양

아이 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관광도시 광양
관광코드로 방문하세요
gr.gwangyang.go.kr

광양시